

# '티켓 구하기 전쟁' 수험생·시민 발동

철도파업 첫 주말 송정역 가보니

10편 이상 운행 중단  
표 없어 버스터미널로  
일부는 비행기 표 예매  
파업 이어지며 불편 가중

전국철도노조 총파업 2주째인 24일 광주 송정역에서는 열차 티켓 구하기 전쟁이 펼쳐졌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일부 시간대의 열차 운행이 감편되는 등 평소보다 10편 이상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주말과 휴일 열차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 열차 대부분은 매진됐다. 광주송정역 안에는 휴대전화로 코레일 앱을 통해 좌석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날 KTX를 타고 고향인 광주를 찾았다는 직장인 김지수(여·27)씨는 "열차표를 구하느라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는데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면서 "월요일엔 표가 아예 없어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KTX(4만6800원)보다 비싼 비행기 티켓(7만1500원)을 예약했다"고 말했다.

서울행 KTX를 기다리던 정승혁(45)씨는 "주말부부라 일주일에 한번은 광주와 서울을 오가고 있다"면서 "열차 파업 때문에 표 예매 등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불만을 털어냈다.

2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광주송정역을 매일 오가는 KTX 상·하행선 44편 중 10편(상·하행 각 5편)의 운행이 중단돼 77.2%의 운행률을 보였다.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는 4편(상·하행 각 2편)이 운행을 멈췄다. 또 광주송



24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광주송정역이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하려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정역과 광주역을 오가는 서틀열차는 하루 30회에서 16회로 53.3%나 축소 운행 중이다.

지난 20일부터 닷새동안 철도파업이 이어지면서 평소 열차를 이용해 서울 등을 오가던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능 이후 전국 많은 대학에서 면접과 논술시험이 시작되면서 열차를 이용하는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도권 대학 면접이나 논술 참여를 위해 정시성이 확보된 열차를 이용했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예기치 못했던 파업 소식에 어렵게 예매한 열차표를 포기하고 버스 터미널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철도파업으로 인한 기차의 출발 시간 변경 우려 등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송정역 안내 전광판엔 "수험생께서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앞 열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란 안내문구를 내보고 있었다.

이를 본 한 수험생은 "말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열차가 매진인 데 앞 열차를 이용하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면서 "안내문구를 보니 더욱 기분이 나빠진다. 파업을 하더라도 수능기간이나 끝나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파업 영향으로 광주종합터미널은 때마침 특수(?)를 누리고 있다. 광주종합터미널의 경우 철도파업 여파로 평소보다 승객이 20~3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오후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중

합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프리미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주윤형(34)씨는 "서울로 출장을 가기위해 KTX를 예매하려다 파업으로 운행 편수가 줄었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버스터미널로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내년 1월부터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증원 ▲충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SR과 연내 통합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이러한 요구 조건을 두고 한국철도와 집교섭을 하며 협상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프로야구 한화 김성훈 안타까운 추락사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투수 김성훈(21)이 9층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세상을 떠났다. 숨진 김성훈은 김민호 KIA 타이거즈 수비코치(50) 아들로, 최근 총남 서산에서 진행된 팀 마무리 훈련에 참가한 뒤 부모님이 계시는 광주로 왔다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광주서부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3일 새벽 5시 25분께 광주시 서구 한 건물 9층 옥상에서 한화 투수 김성훈이 7층 테라스로 떨어졌다.

김성훈은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성훈은 지난 22일 마무리 캠프를 마친 뒤 부모님이 있는 광주를 찾았다. 그는 사고 직전 광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해당 건물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성훈이 발을 잘못 디터 추락한 것으로 보고 타살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

186cm, 83kg의 건장한 체격과 시속 150km에 육박하는 빠른 공을 장착한 김성훈은 잠실중, 경기고를 거쳐 2017년 한화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입문했다.

1군에 첫 데뷔한 지난해엔 10경기에서 2패, 평균자책점(ERA) 3.58로 잠재력을 드러냈다. 올해는 선발로 시즌 개막을 맞았으나 아쉽게도 15경기에서 1패, ERA 4.84에 그쳤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담배꽂초 시비 살해' 태국인 3명 중형 선고

담배꽂초 투기 문제로 다툼을 벌인 러시아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태국인 불법체류자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2), B(33)씨에게 징역 15년씩을, C(3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 밤 9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한 거리에서 러시아인 D(2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한 편의점 앞에서 사을 전 말다툼을 했던 D씨를 우연히 만났고, D씨 일행들로부터 얼굴 등을 폭행당했다.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한 A씨는 휴대전화로 "흉기를 가져오라"며 동료 태국인 B, C씨를 불러내 D씨 일행과 집단 패싸움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건넨 흉기로 D씨의 가슴을 한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 일행은 각각 지인의 집에 숨거나 해외로 도피하려고 김해국제공항까지 달아났으나 범행 다음 날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국에서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하게 됐음에도 피고인들은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50대 사업가 살해' 조폭 부두목 6개월 넘게 도피행각

경찰, 공개수사 나서기로

광주에서 납치돼 경기 양주에서 발생한 '50대 사업가 살인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남지역 폭력조직 '국제 PJ파' 부두목이 6개월 넘게 도피행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신속한 공개수사와 함께 지명수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양주경찰,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는 지난 5월 19일 광주 서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사업가 A(56)씨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공범 김모(65)씨와 홍모(61)씨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같은 달 22일 경찰에 잡히며 재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두 공범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다음달 12일 1심 법원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도피행각중인 조씨는 수사 초기 가족을 통해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면서 광주에서 수사받게 해달라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경찰이 이를 거부하자 그 뒤로는 종적을 감췄다. 이후 조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로, 공개 지명수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까지 공개 지명수배를 하지 않았으나,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난 만큼 내년 종합공개수배 명단(20명 선정)에 조씨를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자로 조씨를 경찰청 종합공개수배 명단에 넣을 계획"이라며 "대포폰과 주변 인물 등을 확보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번 사건과 '판박이' 사건인 '2006년 광주 건설사주 납치 사건' 때도 휴대전화 수신패를 바꿔가며 5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부하 여직원 차에 가두고 추행 소방 공무원 징역 2년 6개월

부하 여직원을 차에서 못내리게 하고 강제 추행한 50대 소방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강제추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과 3년간 아동·청소년기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밤 10시께 차 안에서 부하 여직원 B(25)씨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성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에 오른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던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의 하차 요청을 무시하는 등 13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상사의 말을 계속 거절하기 어려웠던 B씨가 술자리에 동석해 술을 마시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여성 뒤따라가 추행·침입 시도 소방 공무원 징역 4년 선고

새벽시간 만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하고, 집에 침입하려 한 30대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과 아동·청소년기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자정께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28)를 부축한다며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하고, B씨 집 현관문을 잡고 "채워달라"고 하는 등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10여분간 머물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수차례 B씨 집에 침입하려 한으로 조사됐다. 경찰수사에서 A씨 소지품에선 B씨의 현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확인됐다.

/박진표 기자 lucky@

## 무면허에 술마시고 아버지 차 몰던 고교생 고가 외제차 "꽁"



○·면허가 없는 것도 모자라 술까지 마신 채 아버지의 차를 몰고 고등학교 이고가의 외제차를 몰아 수리비만 수천만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17)군은 지난 22일 새벽 1시 25분께 광주 서구 유덕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로 아버지의 K7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

돼 있던 B씨의 포르세 파나메라 차량의 뒤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A군이 들이받은 포르세 파나메라 차량은 구매가격이 최소 1억4000만 원에서 옵션 등을 추가하면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B씨 차량은 올 6월 출고된 신차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로 뒷바퀴 자국이 완전히 망가져 수리비가 수천만 원에 이를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